

‘총장22, 2026 창작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모집

18일까지 영상·문학·시각예술·공연 등 분야

광주 동구 총장22 문화사업단은 예술과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창의적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총장22, 2026 창작 레지던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술가를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장22 창작 레지던시 프로젝트’는 총장로 일대를 기반으로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과 예술을 연결해 도심 문화 생태계를 확장해 온 대표적인 지역 기반 레지던시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입주 지원을 넘어 ▲창작 ▲발표 ▲시민 참여 ▲지역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온 점이 특징이다.

총장22는 개관 이후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작업 결과를 전시, 공연, 워크숍, 아카이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과 공유해 왔다.

이를 통해 총장로 일상 속에 예술 경험을 스며들게 하고, 지역 상인·주민·청년 기획자 등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장소특정형 프로젝트와 실험적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며 도심 활성화와 문화적 재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 레지던시는 영상, 문학, 시각예술, 공연, 다원예술 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 중인 국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된 예술가는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장22에 입주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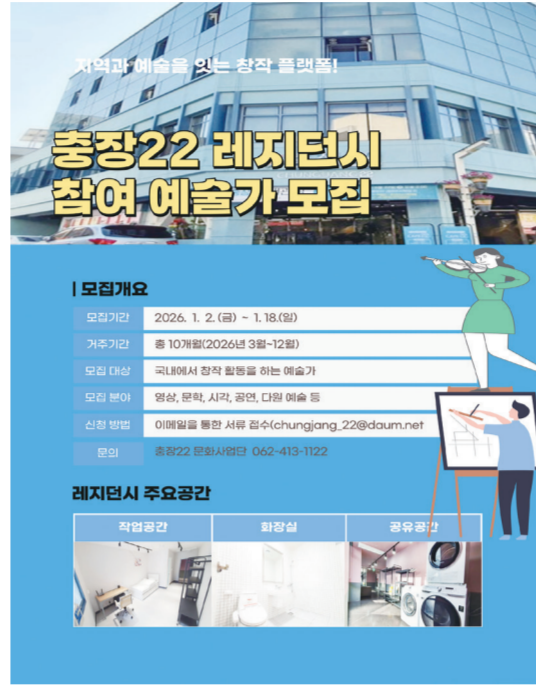
입주 예술가에게는 개인 창작 공간을 비롯해 전시 및 쇼케이스 기회, 시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 전문가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로, 영상·문학·시각·공연·다원예술 등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총장22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총장22 레지던시는 그동안 축적된 창작 성과와 지역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가와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며 “2026년 레지던시를 통해서도 실험적이고 동시대적인 예술이 총장로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22는 ‘도시재생선도지역 3대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총장로 4·5가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콘텐츠를 연계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연면적 1,883㎡,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건물에는 레지던시 독립실 22개와 다목적 전시 공간, 공유 작업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김명수 기자

고흥아트센터, ‘고흥 하나되기 서예 작품 전시회’

1월 9일부터 14일까지... 팔영 강연수 작가 개인전 열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월 9일부터 14일까지 고흥아트센터에서 ‘고흥 하나되기 서예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고흥군 영남면에 거주하는 팔영 강연수 작가의 개인전으로, 총 40여 점의 서예 작품이 전시된다. 강 작가는 평소 고흥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 군민 화합을 기원하는 글귀를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 왔으며, 이 가운데 70점 중 22점을 선정해 서예 작품으로 제작했다.

또한 ‘강연수의 흔적 및 인연’을 주제로 한 작품 18점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2026년 병오년을 여는 첫 전시회로, 지역 예술작가들의 참여를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아트센터는 지역 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 및 대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흥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1-830-5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전남농업박물관, 어린이 농경문화유산 해설사 키운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공모에 선정

초등 4~6년 여름·가을 교육... 해설활동은 자원봉사 인정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 ‘2026년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교육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어린이 농경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에 나선다.

이 사업은 전국 국립·사립·대학 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박물관의 자생력을 높이고, 민속문화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상생 협력 프로젝트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공모 선정을 계기로 ‘어린이 농경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전남 농경문화유산 현장 조사 원천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린이가 단순 관람객을 넘어 또래와 가족에게 문화유산을 직접 전달하는 ‘어린이 문화 전승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재, 체험 키트와 꾸러미, 디지털 콘텐츠도 개발·제작한다. 교재는 어린이 농경문화유산 해설사 교과서와 워크북, 강사용 지도안으로 구성한다. 체험 키트와 꾸러미는 농업유산 시스템 모형과 현장 관찰 도구 등이 담긴 ‘해설사 학습 꾸러미’다. 디지털 콘텐츠는 농업유산 현장 영상, 세대간 공감을 위한 인터뷰 영상 등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이며, 2026년 여름방학과 가을학기에 총 14회 운영한다. 교육은 ▲농경문화유산 현황과 가치, 해설사 역할을 배우는 기본 교육 ▲농업유산 현장 방문을 통해 해설 스토리



텔링과 커리큘럼을 만드는 실습 ▲박물관 축제 등 행사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해설하는 활동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설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용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어린이

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 교육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어린이 해설사들이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나주시립예술단, 신규 단위 위촉으로 예술 역량 강화

국악단, 합창단 34명 새 얼굴... 시민과 호흡하는 문화예술 도약

나주시립예술단이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단위 위촉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이화실에서 나주시립예술단 신규 단위 위촉식을 열고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국악단과 합창단 신규 단위 3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립예술단은 2016년 6월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공연, 지역 축제 및 교류 공연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표 문화예술 단체로 성장해 왔으며 이번 신규 단위 위촉을 계기로 연주 역량과 예술적 완성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단원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시찰로서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 지역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나주시립국악단 해금 1명, 창악 2명, 사물 2명, 무용 5명 등 총 10명

과 나주시립합창단 소프라노 8명, 알토 7명, 테너 5명, 베이스 4명 등 총 24명이 선발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위 14명도 함께 선발됐으며 해당 단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촉장 전달 방식으로 위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신규 단위 위촉을 계기로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공연, 지역 축제 및 교류 공연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나주의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립예술단은 나주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예술로 표현하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2026년 나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새롭게 위촉된 단원들이 나주만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감동을 전해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국민 내일 위한 정책사업

보다나온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